

“학생중심 대학으로 변화·혁신”

양오봉 전북대 총장, 사대부고서 특강
고교생에 목표설정 열정·도전 강조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전북대 세일즈'에 나섰다. 전북대에 따르면 양 총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전북대 사대부고를 찾아 '나의 꿈, 미래, 그리고 전북대학교'를 주제로 특강을 펼쳐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양 총장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와 세계적인 영화감독의 꿈을 이룬 스티븐 스필버그의 사례, 그리고 학생시절부터 태양 에너지 과학자가 되고, 전북대 교수가

되어서는 전북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끊임 없는 도전으로 꿈을 이룬 자신의 사례를 학생들에게 전하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열정을 다해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헬렌켈러와 앤 설리번 선생, 그리고 이들의 장래를 위해 세 번씩이나 이사하면서 아들을 가르쳤다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의 사례를 통해 조력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북대가 학생들이 꿈을 이어나가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양 총장은 지난해 대형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총 6,256억 원을 유치하고, 2023년 대학종합평가 거점국립대 1위, THE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전국 4위, 라이덴랭킹 거점국립대 1위, 재학생 대학만족도 평가 5년 연속 거점국립대 1위, 2019년 54.7%에서 올해 60%까지 수직상승하고 있는 취업률, 그리고 전원의 아침밥과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등록금 등 전북대만의 우수성을 학생들에게 적극 알렸다.

특히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글로벌대학30 사업으로 총 2천억 원을 투입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학생 중심대학을 만들고, 대학-산업도시 구축과 유학생 5천명 유치, 10개 학문분야의 세계 100위권 진입 등을 추진하며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주도하고, 글로벌 허브대학으로 단계히 나가는 원대한 계획을 설명하며 많은 우수 인재들이 전북대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총장은 “앞으로 전북대학교는 학생에게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며 “10년 후 대한민국에서 우수인재들이 먼저 찾는 대학, 지역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대학, 유학생이 머물처럼 밀려오는 대학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대는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는 전북대학교와 함께 지역과 미래를 이끄는 큰시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장은성 기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전북대 사대부고를 찾아 '나의 꿈, 미래, 그리고 전북대학교'를 주제로 특강을 펼쳐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특성화’ 에너지신산업 관련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박차’

국립군산대,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선정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교육부의 '2024년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 내 유 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대학 내에 유치 및 산학연협력의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대학의 우수인력·기술과 기업의 혁신역량 간 공간적 연계를 통해 혁신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총 5년이며, 국립군산대학교는 5년간 8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지자체 및 대학 대응자금을 포함 총 92억원 내외의 재정이 투입된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세계 최고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비전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지역전략산업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 신기술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스타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군산대학교의 산학연협력단지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국립군산대 새만금캠퍼스 신재생에너지융합특성화관에 구축되며,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소의 기업 설립 및 창업,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등을 산업 현장에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장호 총장은 “지역의 전략산업과 대학의 특성화분야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 국립군산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세계 최고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산업 현장에 있는 대학의 캠퍼스를 적극 활용하여 입주기업과 대학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 견인고 기업과 대학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학연협력단지 주변 기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역량 강화 및 산·학·연·관의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대, 학사단위 구조 개편안 확정

자유전공학부·공연예술학과 신설 등... 학생·지역사회 수요 반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자유전공학부 및 반려동물산업학과, 공연예술학과 신설 등 학생과 지역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학사단위구조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원 내에서 66개 학과, 3개 학부, 5개 전공으로 한 학사단위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자유전공학부를 신설, 총 17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유전공학부 입학한 학생은 1학기 동안의 전공 탐색 기간을 거쳐 1학년 2학기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일부 학과 제외)를 선택하게 된다.

인문콘텐츠대학은 150명, 경영대학은 282명을 선발하며, 이를 통해 입학한 신입생은 한 학기 동안 학과 선택을 위해 단과대학 내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수강한 후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 소속된다.

특히 지역 및 미래산업 수요를 반영해 반려동물산업학과, 공연예술학과를 신설했다.

신설된 반려동물산업학과는 미래 반려동물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동물보건사 및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양성, 펫푸드, 펫미용 등 반려동물 관련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국내 최고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전문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원 등 최상의

교육환경을 갖춘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연예술학과 신설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연 및 음악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신설된 공연예술학과에서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연기 및 연주 실기 지도와 국내 대학 최대 세트 제작실 및 음향·조명 디자인 편집실, 실기 스튜디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산업 수요 변화에 따른 인재 양성 및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 학사단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학사단위구조개편안은 교무위원회의 대학평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 학칙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지역 대학 PSST 창업

시뮬레이션 연합 캠프 성료

전주대 창업교육센터

도내 대학생 43명 대상

전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는 도내 대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전북지역대학 PSST 창업 시뮬레이션 연합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권 8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팀별 자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아이템을 도출하고, 해당 아이템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 창업역량 강화의 기회를 얻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달 30~31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최근 창업 사업계획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PSST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STEP 1' 스타트업을 움직이는 비즈니스 팀빌딩, 'STEP 2' 창업 트렌드와 아이템 탐색 & 선정, 'STEP 3' 창업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STEP 4' 창업 아이템 홍보 및 모의 투자 유치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전주대 강병천 학생(스마트미디어학과)은 “각 팀이 하나의 투자자가 돼 발표한 아이템에 투자 의향서를 작성해 보는 방식이 정말 새로웠다”며 “아이디어 캔버스로 작성한 아이디어를 전주대 창업교육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더욱 구체화시켜 보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창업교육센터 김기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달 31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도내 사학기관 행정(법인)실장 11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사학기관 행정실장 연수

서거석 교육감 “공·사립 균형 지원 위해 연수 지속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31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도내 사학기관 행정(법인)실장 11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학기관 행정 실장의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날 연수는 다원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윤선택 노무사의 '근로기준법 전반과 적

용 사례', 호원대학교 권기욱 교수의 '결기의 인문학'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사학은 전북교육의 든든한 한 축으로서 전북교육발전의 함께 이끌어 갈 동반자”라면서 “전북교육청은 공·사립 균형 지원을 위해 사학기관에 대한 연수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보보안 강화’...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전북자치도교육청, 이달부터 시행... 사이버 위협 예방·내부문서 유출 차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월부터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랜섬웨어 등 각종 사이버 위협과 내부 중요 업무자료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다.



망 분리 사용자 화면

망 분리 시행으로 업무용 PC에서는 업무시스템 접속 및 문서 작성만 가능하고, 검색사이트 및 메일 접속 등은

인터넷 가상 PC에서만 할 수 있다. 아울러 사무실 이외에 출장지, 재택 등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업무환경을 위해 청사 외부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한 원격근무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민원성 미래교육과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보안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모든 직원이 정보보안 지침을 준수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전북권역 대학 연합 창직 캠프 진행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박 2일 동안 모항해나루가족호텔에서 전주대, 우석대와 함께 '전북권역 대학 연합 창직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인생킹 활용법 △팀 프로젝트(창직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발표 및 우수팀 시상으로 진행됐다. 조덕현 센터장은 “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이번 창직 캠프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



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